

그를 석달을 숨겼더니

(출 02:01-10)

오늘 본문에 첫 번째 등장하는 장면은 레위 족속 중의 한 어머니가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이 낳은 아이를 보호하고 지키고자 하는 필사적인 장면입니다. 2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달을 숨겼더니’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단순히 모성애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숨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입니다.

모세의 부모들의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기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이상입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모세의 부모들은 바로의 잔인한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아버지 아브람의 믿음만도 아닙니다. 부모 모두의 믿음이었습니다. 부모들은 주일날 함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함께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함께 자녀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수고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자녀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수고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아들을 낳았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대학생 때는 늦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영원한 피난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숨도록 피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부모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답하십니까?

믿음으로 자신에게서 태어난 아기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다시 모세의 부모들에게 돌려 주셨습니다. 모세를 다시 돌려 받아 가슴에 앉았을 때 자신의 아이 모세는 이제 평범한 아이가 아닙니다. 애굽의 왕실의 바로의 딸의 왕자로 돌려 받았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된 자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를 믿는 믿음에 더욱 굳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최고의 학문을 배우며 자라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러진 것들을 그냥 돌려 보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너머 자녀들과 여러분들 자신을 거룩하고 풍성하게 축복하십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